

Deloitte Insights

Mar 2025



첨단기술 산업 경영진의 핵심 이슈와 대응전략

2025년 경영환경 변화 속 기업의 실행 과제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들어가며	03
1.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05
2. 신뢰 구축을 통한 생성형AI 도입 효과 극대화	07
3. 생성형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혁신	10
4. 기업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및 파트너십 고려	12
5. 규제 변화 대응	14

들어가며

“최근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산업(이하 ‘기술산업’으로 명명)은 IT 지출 증가, AI 투자 확대, 그리고 혁신에 대한 새로운 집중에 힘입어 2025년에 성장이 예상된다.”

기술산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거시경제 및 글로벌 불확실성과 같은 역풍에 직면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비 지출 감소, 제품 수요 하락, 시가총액 감소,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24년 딜로이트 기술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점에서, 분석가들은 기술 산업이 점진적인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조사에 응한 기술 업계 임원들 또한 이에 동의했다.

2025년 기술 산업의 성장 전망은 어떠한가?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기술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2025년 글로벌 IT 지출이 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데이터 센터 및 소프트웨어 부문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AI 관련 지출은 연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4년에도 기술 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속되었으나, 감원 속도는 2023년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딜로이트는 기술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에 다시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클라우드, AI, 사이버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전환하거나 강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은 생성형AI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술 기업들은 생성형AI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실험하며, 최적의 제공 방식과 수익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불안과 공급망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화와 자립(self-reliance)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공급망과 운영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입될 규제들이 기술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안들은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생성형AI가 파일럿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사용 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새로운 위험과 기회 요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을 대비한 전략적 방향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및 그 이후의 기술 트렌드와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다.



2025년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 이슈 및 도전 과제

2025 핵심 이슈



글로벌 IT 지출 증가

- 글로벌 IT 지출은 9.3% 증가 전망
- AI 관련 지출 29% 성장 (24~28)



지정학적 갈등 지속

-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공급망과 운영 다각화 필요



글로벌 규제 변화

-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 파악 및 전략 수립



생성형AI 수요 증가

- 생성형AI가 파일럿 단계에서 실사용 단계로 전환
- 생성형AI 활용 가능성 실험 및 수익화 전략 모색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 소비 지출 감소 및 제품 수요 하락

기술 리더들의 도전 과제



- 01 리스크 관리 역량 확보
- 02 생성형AI에 대한 신뢰 구축
- 03 생성형AI 기반 개발 환경 조성
- 04 M&A 및 파트너십 강화
- 05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1.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2025년에도 기술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보안 위협 확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지속가능성 문제 등이 기술 전략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사이버 보안은 2025년에도 기술 산업의 핵심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IoT), 생성형AI,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으로 인해 공격 가능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전 세계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글로벌 보안 제품 시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디지털 혁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 기업들은 지적 재산, 영업 기밀(특히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한 보호 필요성 증가), 고객 데이터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이고 다층적인 보안 전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강력한 암호화 및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사용자 및 디바이스 신원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보호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 기업들은 코드 및 디지털 자산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기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지적 재산이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 해커들은 코드 취약점을 악용해 네트워크에 침입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관리되지 않거나 과도한 권한을 가진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중요한 자원에 접근하려 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코드 내에 자격 증명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보안 부채(Security Debt)'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취약점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이 출시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술 기업들은 보안 중심 개발(Secure Development Practices) 원칙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최소 권한 원칙(Least Privilege Principle) 적용, 테스트 환경 보안 강화,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및 테넌트(Tenant) 폐기, 특권 접근 관리(Privileged Access Management, PAM) 시스템 도입 등 생성형AI와 양자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임원의 82%가 보안성이 확보된 시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생성형AI 프로젝트의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감한 데



*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사용자 및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권한과 세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보안 활동

이터 및 AI 모델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에, 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딜로이트의 기업 내 생성형AI 현황 보고서(Q4)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 임원의 36%가 생성형AI 기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조직 내 업무 프로세스에 광범위하게 통합했다고 답했다.

한편,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은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양자 저항 암호화(Quantum-resistant Cryptography)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양자 저항 암호화에 대한 투자는 2023년 대비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및 무역 갈등 심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술 기업들은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를 약용하려는 정교한 공격자들로부터 자사를 보호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수출 통제, 무역 장벽, 산업 정책을 활용하여 기술 자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과 산업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 기업들은 공급업체 및 제조 운영의 다각화를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 대형 기술 기업들은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및 베트남과 같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확대하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글로벌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변화를 사전에 예측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소비 문제 또한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성형AI 및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681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비의 2.5%를 차지하며, 이 중 40%는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될 전망이다. 기술 기업들은 탄소 중립 목표(2030년까지 달성 예정)를 충족하기 위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기술 도입(예: 혁신적인 냉각 기술), 운영 최적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Nuclear Reactors) 등 대체 에너지원 도입 고려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은 기후 리스크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 있다. 허리케인, 홍수,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데이터 센터 운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기후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고지대 플랫폼, 홍수 방벽, 내진 구조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의 인프라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기술 리더가 고려해야 할 전략적 질문

- Q 새로운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 Q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위협 탐지 및 대응을 수행하고 있는가?
- Q 자사의 클라우드 환경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을 준수하며, 접근 권한과 사용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Q 개발 프로세스에서 '보안 부채(Security Debt)'를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가?
- Q 우리 기업은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평가하고 글로벌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동적 리스크평가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가? 정책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 Q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자사 운영 및 공급망(특히 핵심 부품에 미치는 영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완화하고 있는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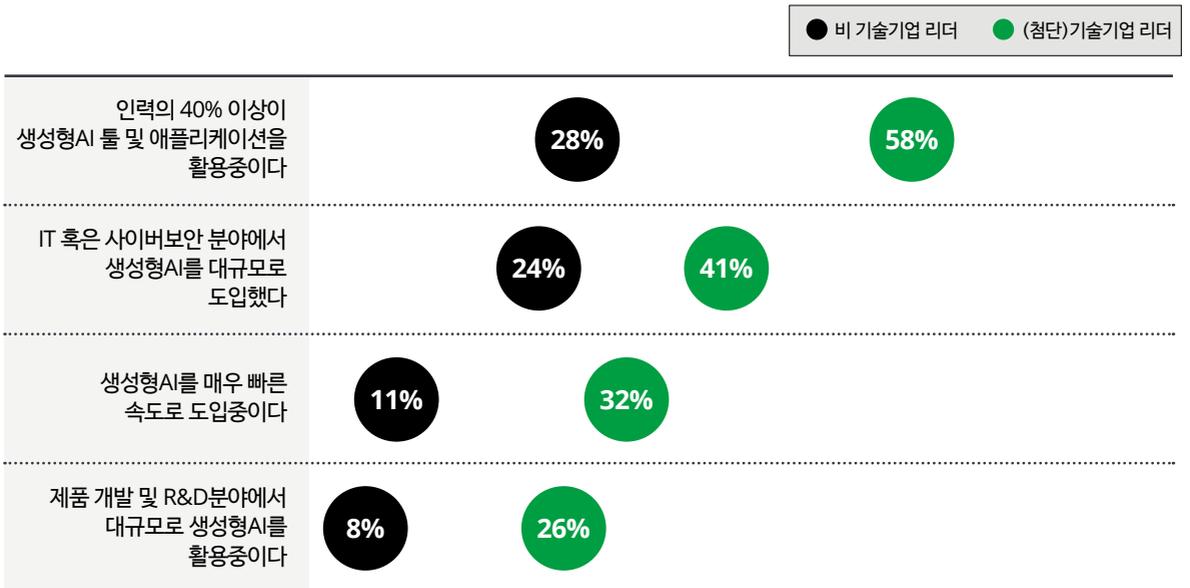
2. 신뢰 구축을 통한 생성형AI 도입 효과 극대화

생성형AI는 기업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백오피스 및 프론트오피스 운영, 제품 개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방식 전반에 걸쳐 혁신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타 산업 내 기업들보다 생성형AI를 더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기술 리더의 약 3분의 1이 자사에서 생성형AI를 빠르게 채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타 산업 리더의 경우 11%에 불과했다. 또한, 생성형AI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이 기술 기업 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그림 1 참조).

기술 기업에서는 IT(사이버 보안 포함) 부문에서 대규모 생성형AI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는 비(非)기술 기업들보다 앞서가는 추세다.

그림 1. 생성형AI에 활용 수준에 대한 견해(기술기업과 비기술기업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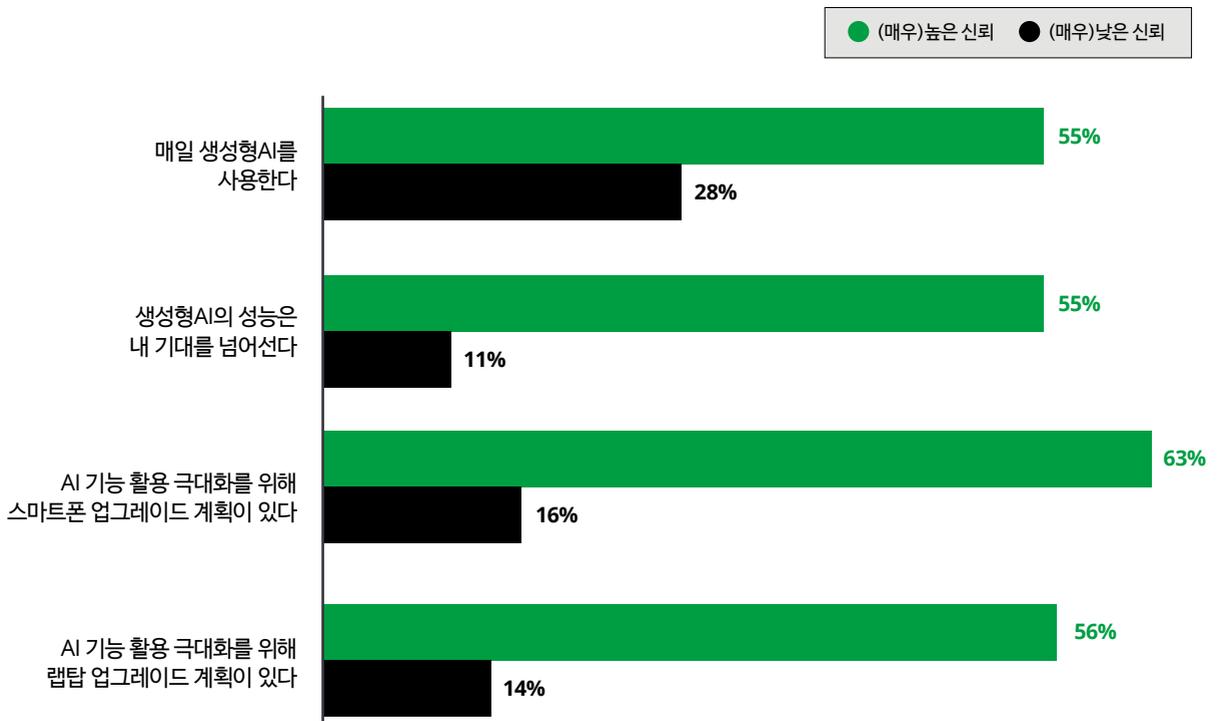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2024), 생성형AI 현황 조사 [n: 348 (기술기업리더) / n=2,425 (비기술기업 리더)]

이러한 생성형AI 도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리더들은 향후 2년 동안 조직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언급했다. 생성형AI 도입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는 높은 비용, 오류에 대한 우려, 생성형AI가 기대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편향, 환각, 부정확성으로 인한 신뢰 상실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기술 리더들이 생성형AI가 정확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능력은, 신속한 생성형AI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인다.

일부 도입 기업들은 신뢰를 우연에 맡기지 않고, 생성형AI 구현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딜로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생성형AI를 도입한 기업들 중 '신뢰 구축자(trust builders) 그룹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기능 강화, 알고리즘 환각 감소, 목표와 잠재적 영향에 대한 직원들의 투명성, AI 도구 채택 시 공감과 친절함을 강조하는 기업들로, 기술 기업의 40%가 '신뢰구축자' 범주에 속한다. 반면, 비기술 기업은 27%에 불과하다. 신뢰 구축자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생성형AI의 기대되는 혜택(제품 및 서비스 개선, 혁신 및 성장 촉진,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고객 관계 향상, 수익 증가 등)을 실현하는 상위 3분의 1에 속할 가능성이 18% 더 높다. 생성형AI 도입과 혜택에 있어 신뢰 구축은 최종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딜로이트의 2024 Connected Consumer Study 분석에 따르면 생성형AI 기술 제공자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높은 신뢰를 보이는 소비자들이 생성형AI를 매일 사용하고, 그 기대를 '크게 초과'하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그림 2 참조). 또한, 높은 신뢰도가 디지털 기기 구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AI 기능이 장치에 내장되어 업그레이드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생성형AI에 높은 신뢰를 보이는 소비자들은 계획보다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를 더 빨리 할 가능성이 거의 4배 높았다. 노트북 업그레이드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2. 소비자들의 생성형AI에 대한 신뢰와 AI 기능 활용의 상관관계



출처: 딜로이트(2025), 디지털 소비자 서베이[n: 432 (생성형AI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 n=1,477 (생성형AI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험적으로 사용해본 적 있는 소비자) / n: 1,351 (생성형AI를 랩탑을 이용해 실험적으로 사용해본 적 있는 소비자)]

소비자 신뢰 구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생성형AI 제공업체가 수집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의 Connected Consumer Survey에 따르면, 생성형AI를 도입한 소비자 중 17%만이 기술 제공업체가 “매우 명확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을 제공하고, 그들의 데이터에 대해 “매우 쉬운” 통제권을 제공한다고 느낀다. 이 그룹에서는 69%가 자신들의 생성형AI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높은 또는 매우 높은 신뢰를 보인 반면, 8%만이 낮거나 매우 낮은 신뢰를 보였다.

반대로, 83%의 생성형AI 도입자들 중에서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이 매우 명확하지 않거나 데이터 제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16%만이 높은 또는 매우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44%는 낮거나 매우 낮은 신뢰를 보였다. 이 격차는 생성형AI 제공업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사용자 신뢰를 얻고 생성형AI 기술에 대한 더 넓은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업체들은 보안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 수집되는 데이터를 제한하거나 고객맞춤화 할 수 있도록).

기술 리더가 고려해야 할 전략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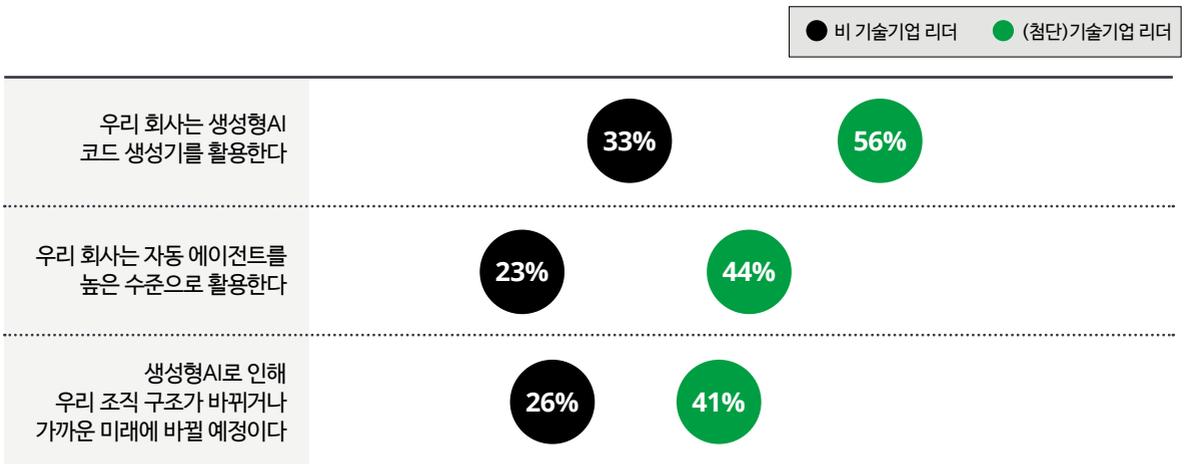
- Q 생성형AI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 Q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생성형AI 알고리즘이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한지 확인하고 있는가?
- Q AI 이니셔티브의 목표와 잠재적 영향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생성형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가?
- Q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정책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 Q 사용자에게 우리가 수집하고 사용하는 정보에 대해 더 많은 제어권을 제공하며, 그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서 참여시키고 있는가?



3. 생성형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혁신

2024년 말 기준, 미국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다른 산업의 기업들보다 AI 도입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기술 기업의 18% 이상이 이미 AI를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다른 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한, 생성형시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 기업의 경영진은 비기술 산업의 경영진보다 그 변혁적 영향력에 대해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기술 업계 리더의 41%가 생성형시가 이미 자사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거나 향후 1년 이내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비기술 업계 리더의 26%보다 높은 수치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생성형시 및 에이전트 활용 현황 및 견해



출처: 딜로이트(2024), 생성형시 활용 실태 서베이 [n: 348 (기술기업리더) / n=2,425 (비기술기업 리더)]

또한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업계 경영진은 자사 기업이 생성형시 도구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고 테스트한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56% vs 33%), 자율 에이전트(AI 에이전트)의 활용을 광범위하게 또는 매우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에 달한다(44% vs 23%).

한편, 소프트웨어 코딩 도구는 생성형시 초기 활용의 대표적 사례이며,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가장 높은 산업에서 더욱 그러하다. 2024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2%가 AI 코딩 도구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글로벌 개발자 조사에서는 AI 기반 코딩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49%가 이를 매일 활용한다고 밝혔다. 개발자들은 이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적인 코드(boilerplate code)를 작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며, 코드 디버깅 및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학습 속도가 빨라지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만 생성형시 코딩 도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는 연간 1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성형시 코딩 도우미 톨은 완벽하지 않다. 개발자가 승인하는 AI 생성 코드의 비율은 최소 30~40%에서 최대 50~80%로 추정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개발(및 여러 기업 워크플로우)의 다음 혁신은 코딩 보조에서 '자율적 코딩으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독립적인 생성형시 에이전트(Agentic AI)는 최소한의 인간 감독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술 업계는 이와 관련해 다른 산업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며, 자율 에이전트의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Agentic AI의 활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간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아이디어를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Agentic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를 실행 가능한 코드로 변환하고, 개발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를 자동화한다. 다만, 현재로는 오류가 많아 인간의 감독 없이 작업을 완료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요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신뢰성을 높이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일부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독립적인 작업 수행 능력은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생성형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실시간으로 개인 맞춤화하여 더욱 직관적이고 상황에 맞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성형시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행동을 학습하면서 인터페이스 요소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반응성이 뛰어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시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포인트 앤 클릭(point-and-click) 방식의 폼 및 필드 기반 인터페이스는 점차 사라지고, 자연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경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리더가 고려해야 할 전략적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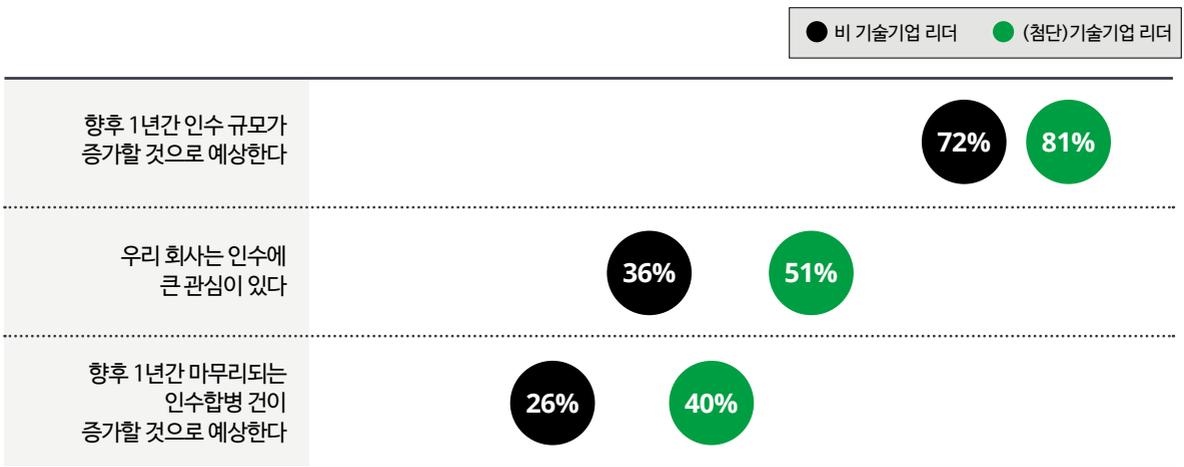
- Q** 우리 회사는 생성형시 코딩 도우미를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 Q** 개발자들이 생산성 향상과 소프트웨어 품질 극대화를 위해 적절한 가이드와 교육을 받고 있는가?
- Q** 생성형시 코딩 도구의 활용이 우리가 채용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구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는가?
- Q** AI가 생성한 코드의 정확성과 편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는가?
또한, AI가 내린 결정에 대한 '인간 검토 프로세스(Human on the loop)'를 마련했는가?
- Q** 생성형시 기반의 자연어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자 행동과 선호에 맞춰 동적으로 변화하는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면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4. 기업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및 파트너십 고려

최근 전망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향후 1년 동안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IT 부문 중 데이터 센터 시스템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성장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기술 공급업체들은 현재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인력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기업은 먼저 생성형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성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기업들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의 요구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민첩성과 시장 진입 속도가 중요하지만,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상호 운용성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 기업들은 개발자 인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구축 혹은 구매'(build-or-buy) 사이의 갈등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자금 차입 비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들은 혁신적이고 특화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수합병을 점점 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높은 금리, 감소한 기술 지출, 그리고 엄격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기술 부문에서의 M&A 활동은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이제 그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의 기술 기업들은 향후 1년간 자사의 인수합병 거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비기술 기업은 26%만이 같은 예상을 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기술기업과 비기술기업 리더들의 M&A 관련 전망



출처: 딜로이트(2025), M&A 트렌드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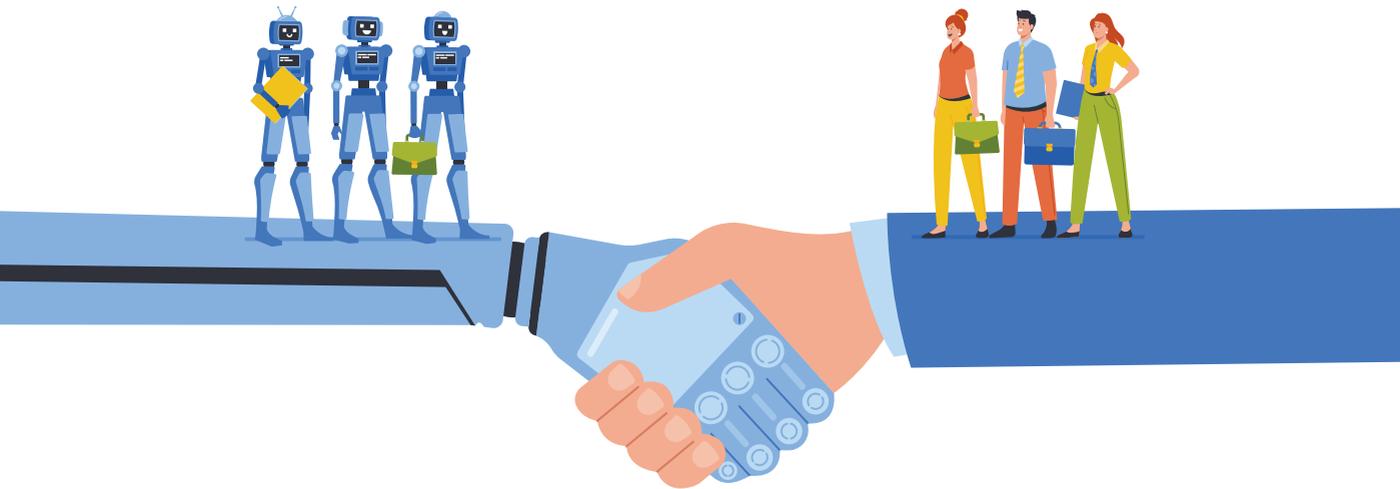
2024년에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기술 및 데이터 센터와 같은 분야에서 강점을 결합하여 고객이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인수합병 거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Cisco는 소프트웨어 회사 Splunk를 28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인수는 Cisco의 네트워크 역량과 Splunk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합하여 사이버 보안, 관찰성, 위협 탐지 및 대응 능력이 더 중요시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른 인수합병 거래들도 진행 중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AI, 하이브리드 IT,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노력 중이다.

전통적인 M&A 외에도 기술 기업들은 경제적, 규제적, 운영적 어려움 속에서 조인트 벤처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딜로이트 M&A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중 거의 절반(49%)은 지난 한 해 동안 전통적인 M&A 대신 조인트 벤처와 전략적 파트너십과 같은 대체 구조를 채택했거나, 1~2년 안에 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술 기업들은 생성형 AI 인프라, 소프트웨어(에너지 관리 분야 포함), 보안, 전문 서비스에서의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Dell과 NVIDIA는 Dell의 컴퓨팅, 스토리지 및 보안 기능과 NVIDIA의 AI 인프라를 결합하여 기업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엔드-투-엔드 AI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했다.

기술 파트너십은 많은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고객에게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기술을 조달하고 이를 조합하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AI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어 운영상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이점으로는 데이터와 경험의 더 원활한 통합,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산업별 맞춤형 제공 등이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 제공을 개선하고 타인의 자원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며, 고객층을 확장하여 비즈니스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 기업들이 인수 또는 파트너십의 대상과 방법을 평가함에 따라, 그들은 성장이 어려운 비즈니스 단위가 어떤 것인지 평가할 것이다. 이 지속적인 평가는 자산 매각 기회를 식별하고 자원을 재배분하여 핵심 비즈니스와 우선 사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기술 리더가 고려해야 할 전략적 질문

- Q 우리 회사는 생성형 AI 및 기타 신기술이 접목된 강력한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조직과의 강점을 결합할 기회를 평가한 적이 있는가?
- Q 제품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비핵심 자산을 매각 후보로 식별하는가?
- Q 내부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고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위한 기술 활용 기회를 식별하는 전략이 있는가?

5. 규제 변화 대응

향후 1~2년간, 기술 산업은 새로운 세금 관련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시행과 확산으로 많은 기술 회사들이 데이터 수집, 거버넌스, 그리고 기업 자원 계획(ERP) 전략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라2'(Pillar Two)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특정 다국적 기업들이 최소 15%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이 각 관할 구역에서의 유효 세율을 입증하고 전 세계 매출, 지불한 세금 및 각종 경제 활동에 대한 자세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각 국가에서 자세한 재정 및 세무 정보를 관할 구역 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필라2는 특히 기술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다국적 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의 여러 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객 및 파트너와 거래하거나, 운영 및 시설 위치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거나, 국가별 지식 재산을 획득하고 활용할 때 필라2 규제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EU 세무 협력 지침(DAC 7) 하에서 추가적인 보고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지침은 EU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거래를 촉진하는 EU 외부의 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 및 임대 사업을 위한 시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은 수입, 청구된 수수료 및 기타 관련 거래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유럽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관, 저장되어야 한다. 여러 유럽 국가들은 전자 송장 발행 요구 사항도 채택하여, 기업들이 표준화된 디지털 형식으로 송장을 생성, 전송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 송장의 구조적 특성은 자동화된 처리에 도움이 되며 수작업 데이터 입력을 줄이고 오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제들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U 디지털 서비스세 규정은 기업들이 고객의 IP 주소를 기준으로 총 수입을 추적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의 청구 주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거래에서는 판매 기록이 결제 처리 기록 및 외상 매출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 기업들은 감사인들에게 서로 다른 수익 금액과 비용이 어떻게 할당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소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과 감사인은 총액 수치를 분석하고 할당 논리와 일부 거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규제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해결책은 SI가 탑재된 업그레이드된 ERP 시스템을 활용해 각 거래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 표준화한 후 각 규제를 준수하는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이다.

기술 기업에 중요한 또 다른 새로운 규제 분야는 콘텐츠 규제이다. 기술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판매를 보고하거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그리고 콘텐츠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거버넌스 관행, 보안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한다.

생성형AI가 기술 기업과 이들이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의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콘텐츠 규제 준수가 특히 어려워질 수 있다.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EU의 AI 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AI 프로젝트를 리스크 수준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용납할 수 없는 위험, 높은 위험, 제한된 위험, 낮은 위험.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조항(착취적이고 편향된 AI 구현을 금지하는 조항)은 2025년 2월부터 의무화되며, 대부분의 고-리스크(high-risk) AI 시스템에 대한 준수 의무는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기업들은 이처럼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술 리더가 고려해야 할 전략적 질문

- Q** 개인정보 보호 및 보고 규정 준수를 준비하기 위해 ERP, 사이버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에서 어떤 투자 기회를 탐색해야 하는가?
- Q** 현재의 세금 시나리오를 모델링하여 가까운 미래의 기업 운영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 Q** 자사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관할 구역과 각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규칙을 파악했는가?
- Q** AI 관련 규제와 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및 책임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TMT 산업, AI&Data, AI 혁신 및 거버넌스, Cyber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AI & Data 본부는 100여 명의 기술 및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AI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엔지니어링,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각 산업에 특화된 AI 최적화 방안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딜로이트는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AI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 AI의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적용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산업



최호계 파트너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리더

☎ 02 6676 3227

@ hogchoi@deloitte.com



박형곤 파트너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리더

☎ 02 6676 3684

@ hypark@deloitte.com

AI & Data



정찬욱 파트너

Core Technology, Data Analytics |
컨설팅 부문

☎ 02 6676 2732

@ chanjung@deloitte.com



정창모 수석위원

AI 서비스 | 컨설팅 부문

☎ 02 6676 3288

@ changjung@deloitte.com



이성호 상무

AI & Analytics | 컨설팅 부문

☎ 02 6676 3767

@ sholee@deloitte.com

AI 혁신 및 거버넌스



김진숙 파트너

AI 혁신/거버넌스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4437

@ jessicakim@deloitte.com



심규승 이사

AI 통합 혁신 | 경영자문 부문

☎ 02 6138 5050

@ kyusshim@deloitte.com

Cyber



서영수 파트너

Cyber 리더 |
컨설팅 부문

☎ 02 6676 1929

@ youngseo@deloitte.com



유선희 파트너

Cyber | 컨설팅 부문

☎ 02 6676 2956

@ sunhyou@deloitte.com



문범석 파트너

Resilience & DX | 컨설팅 부문

☎ 02 6676 2949

@ bsmoon@deloitte.com

국제조세 부문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세무자문, 국내 및 해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에 대한 세무자문, 국제거래에 대한 한국 및 해외 현지에서의 세무이슈 대응, 국내 및 해외 현지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신호 파트너

International Tax Leader, Tax Partner |
세무자문 부문

☎ 02 6676 2375

@ shinlee@deloitte.com



곽민환 파트너

International Tax Partner |
세무자문 부문

☎ 02 6676 2488

@ mhkwak@deloitte.com



이종원 파트너

International Tax Partner |
세무자문 부문

☎ 02 6676 2584

@ jongwonlee1@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양원석 Senior Consultant
wonsukyang@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